

# 지역 현안에 목소리 키우는 경제단체들

### 광주상의·건설협회,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지지 입장 주택건설협, 도시계획조례개정 반대 등으로 존재감 이익단체 대변 아닌 균형점 제시하는 전문가 역할 주문도

경제단체들이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생산·수출, 고용·투자 등 경제 지표가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이익단체의 성격에서 벗어나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역할을 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재계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적극적인 경제단체는 광주상공회의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광주전남건설단체연합 등이 꼽힌다.

광주상의는 지역 핵심 현안인 '광주형 일자리', 도시철도, 주택정책 등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 지난 6월 '현대차 광주 완성차공장 사업 참여 의향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낸 데 이어 지난 9월 불참 선언한 노동계를 향해 '완성차공장 설립이 순항하도록 노동계가 협력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성명을 내며 적극적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을 찬성했다.

상의는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도 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상의는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재계 입장을 대변하는 통로 역할을 맡았다. 광주시가 추진중인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해서는 택전건설협회의 '부정적' 입장을 공문화하는 의견 수렴 창구 역할을 맡아 '정부 주택정책과 지역 건설산업 발전방향' 포럼을 열기도 했다.

상의가 경제계 최대 이슈인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 등에 대한 기업의견과 지원사항을 파악해 보완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과는 사뭇 다른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졌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재계 목소리를 대변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광주시가 상업지역 내 비주거 의무 비율을 현행(연면적 10%)보다 강화(20%)하고 주거용 외의 용도 비율에서 준주택(오피스텔)을 제외하고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하향 적용하는 광주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공동화된 도심 활성화 차질'과 '규제 완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세워 반대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주택건설협회 안팎에서는 "유용하나 모델 등 상업시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방치된 곳에 상업시설을 늘리면 떠나간 주민들이 들어오겠냐"면서 "도심 외곽의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게 만드는 등 허술한 도시계획정책을 내놓은 데 따른 책임을 왜 주택건설협회에게만 지우는 지 모르겠다"는 불멘소리로 나온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를 비롯한 14개 단체가 모인 광주전남 건설단체연합회도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건설을 촉구한 바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건설 업역 규제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대해서도 종합·전문건설업체들은 유불리를 모색하며 향후 정책 현안에 자신들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정부가 오는 2021년 공공공사부터 발주자 선택에 따라 종합·전문업

체가 자유롭게 공사를 맡고 상호 윈-윈도 할 수 있도록 업역 규제를 폐지하기로 한 점에 주목, 본격 시행 전 소속 회원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입장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당장, 광주·전남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1287개에 달하고 전남에서만 3120곳이 넘는 전문건설업체가 존재하는 만큼 업역규제 철폐가 현실화되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경제단체들의 생산·수출·투자·고용의 주체로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은 현장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이 많다. 다만, 이익단체의 성격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닌,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균형점을 제시하는 현장 전문가 역할을 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겨울 패션의 완성 '뜨게 가방'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 고객이 콜롬비아 원주민 와유족이 3~4주간 공들여 제작한 모질라백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15일까지 2층 팝업스토어 마이마스터즈 매장에서 콜롬비아 와유족의 핸드메이드 뜨게 가방을 선보인다. <특대소품 제공>

## 기름값 l 당 평균 110.69원 하락

### 유류세 인하 효과... 광주 1572.41원·전남 1582.54원

광주·전남지역 기름 값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를 보면서 19주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시차를 두고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고 있고, 최근 국제유가도 하락하면서 당분간 기름 값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1572.41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유류세가 도입하기 직전 날인 지난 5일 1683.1원보다 l 당 평균 110.69원 하락한 것이다.

지난 6월 넷째주 이후 18주 연속 이어졌

던 상승곡선이 꺾인 것으로, 6개월 전인 5월 4일(1571원)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자동차용 경유도 1410.23원으로 유류세 인하 직전(1486.3원)보다 76.07원 내렸다.

이날 전남지역의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전(1683.1원)보다 100.56원 저렴한 1582.54원으로, 경유도 1420.88원을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유류세 인하 전 높은 가격에 공급받은 제품의 재고에 따라 가격 반영이 달랐던 자영업주들도 점차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어 기름 값 안정세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추후 기름 값이 하락,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석유공사는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 생산량 증가 및 이란 제재 예외 국가 한시적 인장 등으로 하락했다"며 "국내 제품 가격도 국제유가 하락 및 유류세 인하 효과로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배럴당 3.5달러 내린 71.1달러를 기록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 올 김장비 4만3천원 오른 35만2750원 대형마트 평균 13.9% 올라...전통시장은 28만2250원

올해 김장비용이 작년보다 13%안팎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장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가량 저렴했다.

11일 한국물가협회가 김장철을 앞두고 8~9일 이틀간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6대 도시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김장용품 15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비용은 전통시장 전국 평균가격이 28만2250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25만700원보다 12.9% 상승한 것이다.

대형마트 전국 평균가격도 지난해 30만9600원보다 13.9% 오른 35만2750원으로 조사됐다.

배추, 무, 고춧가루 등 김장용품 15품목의 전국 평균가격은 전통시장(28만2250원)이 대형마트(35만2750원)보다 20%(7만500원)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시장에서는 무, 대파, 고춧가루, 등 대부분 품목을 대형마트보다 8.5~48.2%까지 더 싸게 살 수 있었다. 배추는 대형마트가 4% 정도 더 저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

## 일상 속에 들어온 '광융합산업'

### 광산업진흥회 20·21일 로드쇼...LED 식물체험관 등 선보여

한국광산업진흥회가 LED조명으로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체험관을 선보일 계획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광융합산업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2018 광융합산업로드쇼'에서 LED 조명으로 식물 키우기 체험관을 마련, 관람객들에게 선보인다.

이번 로드쇼에서 선보이는 전시관은 관람객들에게 광융합 제품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방문객들은 LED 조명으로 식물을 키우는 공간을 둘러보며 광융합산업 시대가 바쿠

는 지역산업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기간에는 기간에는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파장을 이용한 수생식 LED집어등, LED조명으로 제어 가능한 실내용 식물재배기 제품 등도 선을 보인다.

이외 AR증강현실체험관, VR가상현실체험관 등 코너도 마련돼 최신 트렌드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광산업진흥회 관계자는 "관람객들이 다양한 체험공간을 통해 광융합산업과 관련, 친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현대차 대형 SUV 美서 28일 공개

### 팔리세이드 이달말 사전판매

현대차가 오는 28일 공개할 플래그십(대표) 대형 SUV 차명을 '팔리세이드(PALISADE)'로 확정했다.

'팔리세이드'는 미국 LA오토쇼에서 전세계 최초로 공개될 예정으로, 국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 사전계약 접수에 들어간다.

현대차가 강조하는 '팔리세이드'의 특징은 공간성으로, 운전석부터 3열 승객석까지 고객 요구를 반영한 디자인과 패키지, 안전·편의 기술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운전자 중심에서 벗어나 모든 탑승객이 이동하는 동안 여유롭게 고급스러운 라이프스타일을 누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운전석과 2열 좌석 대비 편의성 측면에서 소외됐던 3열 승객까지 고려한 디자인과 신기술을 대거 적용했다는 게 현대차 설명이다.

또 2~3열 공간을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트 배리어이션(Variation)과 등급 최대 수준의 적재공간도 제공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로또복권 (제832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3	14 19 26 40 43	30
등위	당첨금(원)	당첨지수
1	6개 숫자일치	2,088,204,584
2	5개숫자+ 보너스숫자일치	52,205,115
3	5개 숫자일치	1,465,750
4	4개 숫자일치	50,000
5	3개 숫자일치	5,000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A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 태양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노후연금처럼 100KW급 매월 300만원·50KW급 매월 150만원 수익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자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영암,완도,진도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모듈: LG·화복큐셀 고효율 단결정  
● 인버터: 이태라ABB, 독일카고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